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Y 2015

2015 BASE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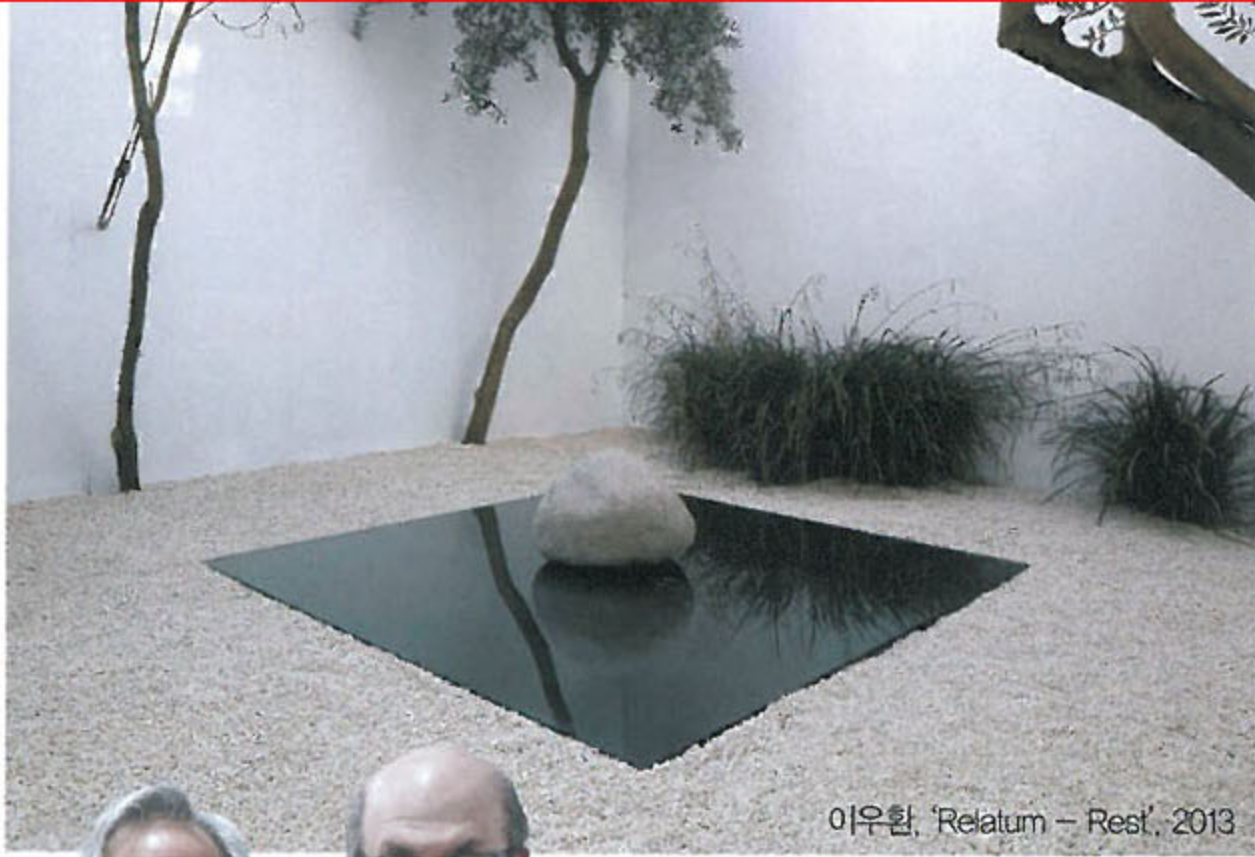
정구호의 재래시장 투어
The Instagram Moments
쿠션 파운데이션 제2라운드

cartier.co.kr

Cartier

WORLDWIDE NOW

editor
정승혜



이우환, 'Relatum - Res', 2013



오프닝을 찾은 아니쉬 카푸어(왼쪽)와 살만 루쉬디 경.

아니쉬 카푸어, 'Gossamer', 2014(아래), 'Disrobe', 2013

LONDON

이우환과 아니쉬 카푸어의 세계

런던 리손 갤러리에선 대형 작가 2인의 신작을 5월 9일까지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이우환은 'Dialogue'란 새로운 페인팅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는 평면적인 페인팅 작품 앞에 날것 그대로의 돌을 배치해 사색과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반면, 아니쉬 카푸어는 보다 강렬하고 화려한 페인팅을 들고 자신의 소속 갤러리를 다시 찾았다. 레드와 화이트의 수지와 실리콘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페인팅은 인간 몸의 내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트라우마와 갈등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기도 하다. 공간을 왜곡시키는 조각들은, 울여름 마르세유 궁전의 가든에서 열릴 그의 최대 규모 전시에 관한 힌트이기도.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web** www.lissongallery.com

NEW YORK

드래프트로 마시는 와인

드래프트로 서빙되는 건 맥주만이 아니다. 와인도 신선하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때가 온 것. 와인 소믈리에와 푸드 디렉터가 함께 이스트 빌리지에 오픈한 all-draft 와인바 'Lois'에선 가스 보존 시스템과 마이크로매틱 냉장 시설이 와인의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 풍미와 신선함을 최고치로 보존해준다. 덕분에 패키징과 배달, 레이블링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비용이 사라지고, 16가지 고품질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writing** 김영빈(뉴욕 통신원) **web** www.loisbarnyc.com



가격은 175ml 6~13달러, 500ml 18~33달러, 1000ml 34~58달러.



영국의 화학자 도로서 호지킨이 그린 '인슐린'을 패턴화한 쿠션은 텍스타일 디자이너 카미라의 작품.

LONDON

READING ROOM FOR ALL

약사이자 사업가 그리고 열혈 수집가였던 헨리 웰컴(Henry Wellcome)의 수집품과 1000여 권의 저서를 전시하는 박물관이자, 다양한 특별전을 여는 복합 문화 공간 '웰컴 컬렉션(Wellcome collection). 스티링 프라이즈 수상자인 세계적 건축가 윌킨슨 에어(Wilkinson Eyre)의 지휘 아래 리뉴얼 중인 이 박물관은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조금씩 오픈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리딩룸'은 웰컴 컬렉션 3층에 자리한 복층 구조의 드라마틱한 도서관이자 전시장이다. 디자인을 맡은 영국의 실력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AOC는, 이동이 가장 많은 공간이란 점을 중요시 여겼다. 복층 도서관으로 향하는 계단 전체에 카펫을 깔고 쿠션을 두어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두 가지 색으로 공간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든 것.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183 Euston Road, London **tel** (44)20-7611-2222 **web** www.wellcomecollection.org

